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도심상권 쇠퇴, 권역별 특화개발로 극복"

"구도심 활성화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 건설을 위해 수준높은 문화 인프라를 유치하고, 고품격 문화브랜드를 육성해 동구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2010년 구정 목표를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성 있는 시책을 통한 '꿈과 희망의 도시 동구'로 정했다.

지금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 건설'의 기반을 착실히 조성했다고 평가한 유 청장은 "동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7대 권역 특화개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유 청장은 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충장로 전천후 명품 쇼핑공간 조성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상가 현대화사업, 17억5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인 전자의 거리 내 아케이드 설치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 간판 정비사업,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성공적인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주거환경정비 지속 추진

동구의 구도심 주택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5곳의 재개발사업구역 중 계림7구역은 올 상반기 착공, 건축심의가 완료된 계림 5-2, 산수 1, 학동 3·4구역 등 4개 구역 등의 단계적인 개발, 1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명품주거단지로의 조성 등이 2010년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를 위해 지역 내 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의재로~증심사권 등을 문화·관광·예술 3대 권역으로 특화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유 청장은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카톨릭센터, 현대극장 등의 리모델링, 학생회관을 활용한 아시아청소년 컬쳐 컴플렉스 건립사업, 의재로 아시아창작예술인촌 조성사업,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설립사업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동구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후원 가게 모집, 동구 아카데미·여성대학·경로대학 등 3대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음식문화 전문가 양성사업 본격 추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2010년 동구 계획에 포함돼 있다.

유 청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풀어내기에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을 주민

충장로에 아케이드 설치

건강과 연계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동구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과의 대화, 시책설명회, 현장설명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각 기관과의 친절 실천협약 체결, 정책 실명제 활성화 등의 신규 시책도 마련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계 최고건물 '부르즈 두바이' 개장

삼성물산 주관…착공 5년만에
162층… 800m 이상 높이 지어져
연면적 50만㎡…잠실운동장 56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두바이(Burj Dubai·영문 이름 버즈두바이)가 5년 간의 대역사(大役事)를 마무리하고 4일 개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5일 오전 1시)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통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르즈두바이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4주년을 맞는 셰이크 모하메드는 부르즈두바이 154층에 마련된 모스크에서 개장 기념 기도의식을 한 뒤 개장식에 참석, 두바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 정부 소유의 중동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에마르(emaar)가 발주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이 건설한 부르즈두바이는 800m 이상의 높이로 지어져 단연 세계 최고 건물의 위용을 자랑한다.

최종 높이는 두바이 정부의 신비주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현재까지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828m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기존 최고 높이 건물이었던 타이베이101(508m) 보다도 300여m나 높은 것이다.

2005년 2월 착공 이후 12억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르즈두바이는 총 162층으로 구성됐다.

1~39층은 호텔, 40~108층은 고급 아파트, 109층 이상은 사무실로 이뤄졌다.

두바이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부르즈두바이의 연면적은 약 50만㎡로 한국 코엑스몰 면적의 4배, 잠실종합운동장의 56배에 이른다.

부르즈두바이 내 사무실과 아파트는 80% 이상 분양된 상태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시세가 2008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분양가보다는 높은 시세(3.3㎡당 한화로 5천만~6천만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내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아 개장식을 마친 이후에도 실제 아파트 입주나 호텔 개장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8시(한국시간 5일 오전 1시) 개장한 세계 최고 높이 건물 부르즈두바이. 건물 높이가 800m 이상으로 기존 최고 높이 건물인 타이베이101(508m)을 압도한다. 2005년 2월 착공 이후 12억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르즈두바이는 1~39층은 호텔, 40~108층은 고급 아파트, 109층 이상은 사무실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전남도 국고 예산 확보율 90%대 '껑충'

반영액도 6조원 돌파…미래 전남 발전 기틀 마련

전남도의 정부예산 확보율이 최근 6년 사이 90%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지역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율이 과거 70%대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6년 사이 매년 90%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4년 70%에 그쳤던 국고 확보율은 2005년 89.1%로 뛰어오른 뒤 ▲2006년 84% ▲2007년 88.2% ▲2008년 89.5% ▲2009년 91.7%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이후 꾸준히 80~90%에 육박하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2조8천억원이었던 국고 예산 반영액도 올해 6조4천346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면서 처음으로 국고 예산 확보 6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지역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물산업 등 특수 시책사업에 많은 국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미래 전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남도의 국고 예산 확보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2005년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를 초월한 정책간담회 개최와 함께 각 부처 장관을 수시로 방문, 국고 건의를 하는 등 전남도의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도 국고 예산 확보율을 높이는데 큰 몫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영 지사는 "올해 국고 예산 중 F1 예산이 일부 삭감돼 아쉬운 면이 있지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올해 의미 있는 성과는 전복과 해삼, 천일염 등 지역 비교우위 자원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저장·가공 및 기업화 예산과 연구산업 관련 예산이 확보돼 전남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 연도별 국고확보 현황

(단위:억원)

연도	건	금액	확보율(%)
2010	497	64,346	89.4
2009	325	58,912	91.7
2008	365	52,292	89.5
2007	285	48,397	88.2
2006	318	43,415	84.0
2005	132	39,481	89.1
2004	164	37,023	70.0
2003	126	34,090	69.7
2002	121	30,209	72.3
2001	125	28,339	75.7
2000	103	26,618	74

전남도 민원처리 51.1% 빨라졌다

전남도의 민원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 접수·처리된 처리기간 2일 이상 기한이 정해진 민원 4천501건을 분석한 결과 4천501건에 대한 법정 총 처리일수인 6만6천791일 보다 3만4천25일이 단축된 3만2천766일 만에 처리해 51.1%의 단축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단축률(37%)보다 14%나 더 단축된 것이다.

이처럼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이 높아진 것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시상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1'등 맛집' 100개 업소 선정

광주시는 '1등 맛집' 100개 업소를 선정해 4일 발표했다.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

이번에 선정된 1등 맛집에는 한식이 78곳으로 가장 많고, 일식 12곳, 양식 6곳, 중식 4곳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7곳, 서구 32곳, 남구 11곳, 북구와 광산구가 각 20곳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1등 맛집에는 지정서를 나눠주고, 종업원을 상대로 관광안내교육을 해 광주 음식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1등 맛집' 100개 업소는 오는 2011년까지 운영된다.

한편, 광주시는 시설과 규모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음식 맛이 뛰어난 '별미집' 10여곳을 조만간 선정해 업소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